

## e-비즈니스 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인터넷 강국이라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e-비즈니스 산업은 어디까지 발전해 있을까. 인터넷의 폭발적인 사용증가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e-비즈니스 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형태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는 'e-비즈니스 산업 현황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지난 7월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했다. 다음은 회의결과를 정리한 글이다.

### e - 비 지 니 스 , 여 건 은 최 고 · 수 준 은 하 락

IT의 발전 및 디지털 네트워크에 따라 IT활용이 경제성장과 산업에 있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요소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거래중심의 전자상거래가 기업 활동 전반의 IT화를 통한 가치 창출 및 생산성 제고를 의미하는 e-비즈니스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 수준의 인터넷 이용환경과 지속적인 정보통신 환경 개선으로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76%), 인터넷 이용률 세계 2위(59%)를 지키며 세계최고 수준의 e-비즈니스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e-비즈니스 수준을 평가하는 EIU(Economist Intelligent Unit)의 e-Readiness Ranking에 따르면 2004년도 14위에서 2005년도 18위로 e-비즈니스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e-비즈니스를 통한 가치사슬의 경쟁력 제고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가치사슬의 경쟁력 제고를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계획을 세웠다. 생산성 향상효과가 일부 성공기업에 한정돼 있어 전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가치사슬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e-비즈니스 육성정책도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개별 기업의 사내정보화 위주로 추진했다는 점과 통신 인프라에 비해 IT 보안 수준이 낮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IT 인프라 확산에 우선순위를 두어 안전성을 고려한 IT 기반 구축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했고 보안관련 분야의 수요창출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외의 선진 기업들은 e-비즈니스를 통한 기업프로세스 혁신 및 가치창출을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전략으로 파악하고 e-비즈니스 도입 및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e-비즈니스를 통한 가치창출에 유리했기 때문에 해외진출 제조기업들이 최근 자국으로 유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일본은 세계최고 IT국가 건설을 목표로 정부, 민간 협력 하에 e-japan을 기본으로 중점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2002년 전자정부 구현의지를 표명하고 국내외 e-비즈니스 기반 확산에, 유럽국가들은 올해 브로드밴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 e - 비 지 니 스 형 기 업 경 영 · 업 무 프 로 세 스 로 의 전 환

재정경제부는 기업·업종 간의 상생을 위해 e-협업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고도화로 자율적인 동반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 간에 'e-협업인프라'를 구축하여 가치사슬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협업 가능한 소규모 기업들을 분야별로 컨소시엄화해 SCM(공급망관리) 솔루션 및 기술을 지원하고 대기업 및 업종분야별로 구축된 정보화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가치사슬의 시너지 효과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문의 차세대 e-network 인프라 구축으로 e-비즈니스 환경이 상이한 기업 간, 업종 간, 부문 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의 네트워크 인프라의 통합을 추구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 안 전 하 고 편 리 한 e - 비 지 니 스 환 경 조 성

재정경제부는 e-비즈니스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그 첫 번째 대안으로 전자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성 실태조사 및 전자거래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등 안전성 강화방안 마련과 더불어 공인인증서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해킹방지, 관리체계 개선 등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을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전자문서 활용으로 종이 없는 비즈니스



스를 촉진한다는 전략 아래, 전자문서의 활용 확대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고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스캐닝)기준 등 전자문서 보관 방법·절차에 관한 표준지침 및 관련 하위지침도 정비할 계획이다.

### e - 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운영기반 확충

재정경제부는 e-비즈니스 관련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e-비즈니스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e-비즈니스 기술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e-비즈니스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급변하는 e-비즈니스 기술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사업 운영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 수용에 대응한 e-비즈니스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공동추진 중인 전자상거래 석사과정에 현지 인턴십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가해 교육효과를 제고하고, 중소기업 IT 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IT 아웃소싱'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또한 전자거래 표준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 간 '표준화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e-비즈니스 기술개발 과제 선정과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의 사후관리체제를 확립할 계획이다.

### IT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 및 국제협력 강화

재정경제부는 FTTH, BcN 등 초광대역 통신망 보급, 신기술 개발 등 IT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러닝(e-Learning) 표준화 및 품질인증으로 콘텐츠 개발 및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이러닝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어 미래 신 성장산업으로서 이헬스(e-health) 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단지를 구축하고, 원격진료 및 전자의료기기 등 이헬스 기술개발을 촉진해 미래 신 성장산업으로서의 이헬스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발전모형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류 없는 무역 실현을 위해 전자무역 문서의 국제적 유통성 확보를 위한 논의와 e-비즈니스 관련 법제도, 표준제정 등을 통해 글로벌 전자무역과 e-비즈니스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